

영원한 내것이란...

윤청광 지음

불교를 대중화 생활화하기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과제 가운데 하나는 한자경전을 우리글로 옮겨 증생속에 가깝게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역경 한평생' 운허스님 삶 소설화

경전을 우리글로 펴내는 역경사업에 몰두한 운허스님이 남긴 유언이다.

3·1운동 이후 독립운동에 가담. 일본경찰에 쫓겨 봉암사에 머물다 경승스님을 은사로 출가. 광동중학교를 설립한 교육자. 역경원을 설립, 한글대장경 편찬에 심혈을 쏟은 운허스님의 모습이 생생하게 다가온다.

화제의 책

길 그리고 길

도법 지음

불교수행자에게 시대의 문제에 대하여 어떤 관점과 자세를 갖고 다가가야 할 것인가라는 고뇌는 수행의 지난 할만함이나 큰 무게를 지닌다.



《길 그리고 길》은 한 수행자가 화엄경에 나오는 선재동자의 이름을 빌려 불교교단과 학국사회문제에 대해

교단·사회에 던지는 수행자의 고뇌

갖는 문제의식과 고뇌의 편린이다. 나아가 한국불교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

한 선지식 보현보살' 등 50개 이야기로 구성. 한국불교의 바람직한 수행자상과 균형잡힌 수행관을 확립하기 위해 정진해온 저자의 오래 묵은 목소리라는 점에서 심상치 않다.

《선재동자의 발심》 '영원

《선우도량, 6천원》

◇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Table with 4 columns: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Lists top 10 books including '도가본이 없는데 내가 무엇을 깨쳤나', '기도', '소셜 등산북 1, 2', etc.

구입문의: (02)737-0695

'부처님 육성' 아함경 읽기 붐

연기·자비·깨달음·보살정신등 대승사상 근본 2480經

한글 대장경·간추린 번역본·해설서·논저등 20여종



◇ 아함경은 아설의 대립이나 대·소승의 구별이 없는 불교의 근간이 되는 경전이다.

소승경전 또는 근기 낮은 중생들에게 설해진 경전이라는 그릇된 편향을 넘어서서 아함경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아함경은 어느 특정한 경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석가 입멸 후 1년 이내에 결집된 부처님 교설의 집성을 총칭한다.

아함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만큼 이 경전에 관한 책도 아함경 전편을 우리글로 옮긴 동국역경원판 <한글대장경>(1~10책)과 <새 아함경>(전 10권, 이연숙 옮김, 인간사랑)을 비롯 20여종이 이른다.

이 가운데 <아함법상의 체계성연구>(동국대출판부)는 아함경에 설해진 5이처설(十二處說) 오온설(五蘊說) 십이연기설(十二緣起說) 등 불교의 기본교리를 자세히 밝히고 있다.

다른 어떤 경전보다도 부처님의 인간애에 가깝고 사상적인 변화도 거의 없으며, 이설의 대립이나 대·소승의 구별도 보이지 않는 불교의 근간이 되는 경전이다.

근본주의인 깨달음(覺) 그리고 대승의 근본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보살사상 등이 총체적으로 설해져 있다.

아함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만큼 이 경전에 관한 책도 아함경 전편을 우리글로 옮긴 동국역경원판 <한글대장경>(1~10책)과 <새 아함경>(전 10권, 이연숙 옮김, 인간사랑)을 비롯 20여종이 이른다.

이 가운데 <아함법상의 체계성연구>(동국대출판부)는 아함경에 설해진 5이처설(十二處說) 오온설(五蘊說) 십이연기설(十二緣起說) 등 불교의 기본교리를 자세히 밝히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능동적인 사상임을 천명하고 있다.

또 쓰여는 달리 아함경을 텍스트로 삼아 부처님의 일생과 가르침을 재구성한 책으로는 <가려뽑은 아함경>(선우도량 교육위원회) <부처님 말씀>(성열 편, 현암사) <불타의 아함사상>(보산 편, 미래문화사) <큰몸에 살림이 많고 지혜없으면 어디다 쓰리>(이연숙 편, 인간사랑) <아함경 이야기>(이원섭 옮김, 현암사) 등을 꼽을 수 있다.

부부번역해 펴낸 것으로는 <아함경>(돈연 옮김, 민족사) <잡아함경>(돈연 편저, 해인사출판부) <한글 아함경>(고인진 편

역, 동국대출판부) 등이 있다.

그러나 아함경의 중요성에만 매달려 '아함경만이 모든 것'이라는 식의 교조화도 바른 견해는 아니다.

법성스님은 이와 관련 세가지 유의점을 제시한다. △교조화되면 자칫 불교철학의 속류화와 연기론의 단순소박화로 돌아갈 위험성이 있으며 △종파불교가 확립한 전통과 사상의 축적물을 부정해서는 안된다는 것 그리고 △오늘의 삶의 문제를 푸는 실천적 관심을 견지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정성운 기자

57년 이후 사랑한 외국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사후 50년까지 소급보호토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저작권법이 지난 17일 개정됨에 따라 불서출판계도 새로운 출판환경에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통과

'학술출판 진흥기금' 설치 등 보완책 절실

직면했다. 출판계는 87년 이후 출간된 책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보호해왔으나,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급세기에 나온 거의 모든 외국인 저작물에 대해서도 저

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특히 출판시장이 협소한 불서학출판사들은 저작권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심각한 재정 압박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대한출판문화협회 산하 저작권대책위원회(위원장 윤청광)는 "이번 저작권법 개정으로 치명적인 문화공동현상을 초래하게 될 우리가 있다"며 정부에 대해 학술출판진흥기금의 설치 등 제도적인 출판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는 불성을 보라고 강조한다. 최세만 옮김(시공사, 5천원) <그 마음을 버치리>(김재용 지음)=금강경독송회 지도법사인 저자가 '맑은 마음 밝은 마음'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에 이어 세번에 펴내는 수행지침서.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용화, 7천5백원> <지장왕보살 김교각(한성린의 그림)=중국 구화산을 지장도량으로 일군 교각스님의 구도일대기를 담은 화보집. 탄생으로부터 입멸후 지장보살로서의 현시과정을 102장의 그림과 함께 간략한 설명을 덧붙였다. (우리출판사, 5천원)



새로나온 책

▲부모은중경(정의행 옮김)=헤아릴 수 없는 부모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살린 불교의 효경인 부모은중경을 '돈황본'을 텍스트로 삼아 우리글로 옮겼다. 용주사판 부모은중경에 실린 김홍도의 판화와 부모은난보경 우란분경도 함께 실었다. (이바지, 3천원) ▲금강경이야기·하(법륜 지음)=금강경 32분 가운데

17~32분까지의 경전설법을 묶었다. '진정한 보살이 되는 길' '금강경의 멋진 신세계' 등 6장으로 구성. '나'를 버리는 새로운 사고로의 전환을 이끈다. (정토, 6천2백원) ▲선으로의 초대(스즈키 순류 지음)=덧없는 인생속에서 어떻게 영구한 가치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 대한 일본 조종종 스즈키선사의 답변. 저자는 일체의 존재들 속에 있는, 그리고 우리들의 자신속에 있

명사추천



'지금 이 자리에서의 깨달음'

우리 삶의 규명은 철학적이든 종교적이든 간에 규명하기 어려운 명제이다. 이러한 규명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도 의문이기도 하다.

나는 불자로서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고 부처님의 마음을 닦아가고 싶어하는 중생이다. 부처님은 우리에게서 역시 부처임을 일러 주셨다. 우리가 부처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나에게 내재된 부처 마음을 찾아내야 하고 또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본래 부처를 증명해야 한다.

한때 조계종 중흥을 역임하셨던 만암 스님께서는 어느 설법에서 선이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하시고는, "어부가 낚시대를 드리우고 고기가 낚시에 걸리는 순간을 포착하는 것, 어머니가 갓난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자애스

사가 지은 <지금 이 자리에서의 깨달음>(도서출판 장승)이라는 책을 대하고 보니 화두를 대한 듯 나의 관심이 불같이 일어났을 듯했다. 내용을 살펴보니 좌선수행과 깨달음을 위주로 불교의 핵심을 짚어가는 사람들이 매우 논리적이고, 막혔던 나의 마음을 열어주었다.

그 내용으로는, 첫째로 종교는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라고 일깨워줌으로써 종교의 권력과 집착을 놓게했다. 또 선은 명사이며 명상은 곧 종교의 내용임을 천명하고



오진모 (강원개발연구원장)

일체를 놓아버린 '행복' 가르쳐

명상·깨달음 문답식으로 서술

은 표정으로 내려다보는 그 순간, 장사꾼이 노점에 앉아 손님을 기다리는 자세, 구걸하는 거지가 강풍을 들고 남의 문전에 서서 주인이 가져다 주는 동냥을 기다리는 순간 등, 이 모든 것이 선 아님이 없다"고 하셨다.

이 말에 의심을 품은 젊은 수좌가 "이것 저것이 다 선이면 농부가 밭가는 것도 선 일테고, 학생이 책가방 메고 학교가는 것도 선일테고 무엇 하나 선 아님이 없지 않습니까?"라고 질문하였더니, 만암스님께서 "하, 그게 선인줄 모르니까 탈이다"라고 하셨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좇아 수행하는 이라면 누구나 선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을 것이다. 과연 선의 요체는 무엇일까? 나도 젊은 수좌처럼 만암 스님의 법문에 의심을 품은 사람중의 하나였다. 그런데 얼마 전 일본의 '다이센 데시마루' 선

있다. 들쭉는 선은 순수 본질로의 회복과 우주질서와의 조화임을 말하고 있다. 셋째로 깨달음의 요체는 일체를 놓아버린 상태에서 느끼는 행복이라고 밝히고 있다. 선사는 이를 아주 쉬운 문답형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며, 특히 기독교와도 비교함으로써 독자들이 이해를 가져다 주고 있다.

이 책에서 내가 얻은 결론은 현재의 행위에 집중하고 그외의 것은 일체를 놓아버려야 한다는 것. 나의 삶에 있어서도 행복의 것을 생 각하지 않는 일대의 변혁적 삶을 깨우쳐 주고 있다. 나는 이 책에서 얻어진 작은 깨달음이 성숙되어 참되고 위없는 깨달음으로 승화되기를 기대한다. 아마도 이 말은 우리가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과거, 현재, 미래, 두고두고 잊지말아야 할 영원한 삶의 귀감이 아닌가 생각한다.

불은가득, 법은가득

항상 길 떠나는 마음, 책방 여시아문이 함께 하겠습니다

독자와 함께 하는 독서회원제

책방 여시아문의 회원이 되시면 언제든지 필요한 서적을 편리하게 구입하실 수 있으며 본 책방에서 발행하는 신간 안내 소식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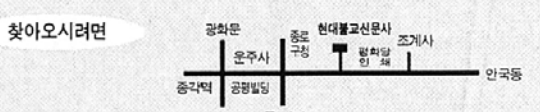


매월 발행하는 독자들의 귀와 눈 '책방 여시아문 소식지'

- 매월 15일 발행하는 여시아문 소식지는 불교 서적에 관한 최신 정보를 가득 담고 있습니다.
• 새로 나온 책-각종 불교서적 및 불교 관련 신간을 빠짐 없이 수록하였습니다.
• 독자가 뽑은 나의 불서-독자와 함께 추천하는 불서
• 불교 출판 편집자가 뽑은 명저-불교서적 출판에 온갖 정성을 다하는 불교서적 전문 출판 편집자가 추천하는 불서
• 책방 여시아문이 뽑은 이달의 책-본 책방에서 앞서라고 검증된 불서만 가려 뽑아 실었습니다.
• 불교 출판사를 찾아서-불교 출판 문화 발전에 항상 노력하고 있는 불교 출판사 탐방
• 베스트셀러 20선-책방 여시아문 월간 판매 집계 20선.
• 책방 여시아문 지세히 보기-독자 여러분께 보탬이 되고자 본 책방 소장 영인본, 희귀본, 절판본을 계속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항상 독자를 찾아가는 통신 판매

지방에 계신 독자나 산사의 스님, 책방에 나오시기 어려운 분을 위해 통신 판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 주문은 전화,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송료는 책방 여시아문에서 부담합니다.



책방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737-0695 / 팩스 : 737-0696